도시 청년들의 시골정착 실험 어쩌다 로컬





2021년 청양 '한 달 살기'로 모인 도시 청년들이 지역과의 상생을 꿈꾸며 **협동조합 어쩌다로컬**을 설립했습니다. 버려지던 버섯의 사연을 담은 동화책과 **못난이 버섯 크라우드 펀딩**으로 농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. 이후 대표 투어 브랜드 **'소도시 탐험대'**를 기획하여 500여 명의 청년들과 **농가 일손 돕기, 주민과의 소통**을 이어가며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.

지역 자원 활용과 청년 연대와 상생의 로컬모델





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**'청양 고추빵'**을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대표 매장을 오픈했습니다. 나아가 자신들의 노하우를 나누는 **'로컬 창업 부트캠프'**를 운영하며 도시 청년들의 시골 창업 도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단순 보조금 의존에서 벗어나 **실용적 청년 네트워크와 수익 사업**을 바탕으로 자립적인 '청년 거리 상권'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.